

가을 정취와 함께 마시는 꽃차

찾잔에 꽃이 피면 마음은 향에 젖네

일교차가 큰 때이다. 한 낮에는 30도 가까운 더위가 아직 기승을 부리지만, 아침 저녁으로는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.

모든 꽃을 우려 마신다고?

꽃차 중 가장 알려진 것은 국화차다. 국화의 경우 야생에 있는 '산국'은 약용으로, '내국'은 화전 등 음식의 재료로, '감국'은 차로 이용돼왔다.

아카시아, 등나무꽃, 찔방 등은 생것 그대로 차의 재료가 될 수도 있지만, 대부분의 꽃은 말리거나 찌고 튀는 등의 가공방법을 거쳐 건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.

막 개화한 꽃 이슬 깨기전 따는 게 좋아 색 간직하려면 소금물에 꽃 씻어 말려야

꽃을 잘 따려면

산이나 들에 피어있는 야생화를 모두가 차의 재료가 될 수 있다해도 무리 대고 따서 안 된다. 자연보호 차원에서든 그렇지만 올바른 채취법은 꽃차의 향에도 영향을 준다.

좋은 꽃은 이슬이 깨기 전에 따는 것이 좋다. 밤 동안 간직하고 있던 대지의 기운을 아침이 되면서 빨라내기 때문이다.

꽃차를 만들려면

봄에 피는 꽃은 그늘에 말렸다가 다 말랐다고 생각될 때 1시간 정도 강한 햇빛에 다시 말린다.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준다.

이슬 맺은 가을 꽃은 특히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. 난방한 방에 넣어 말려도 된다. 가을 꽃은 향이 강한 것이 특징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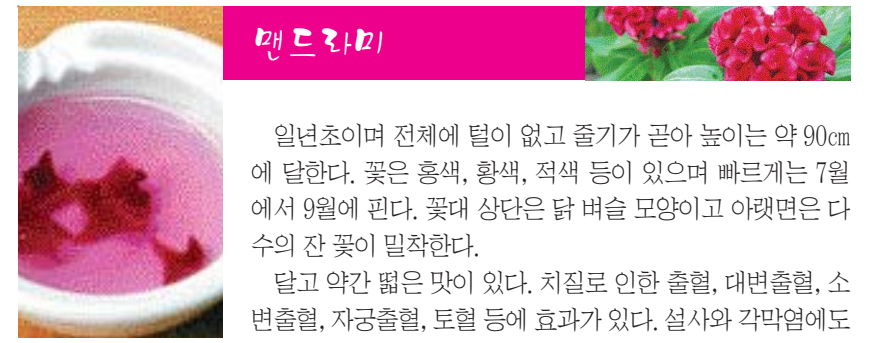


올 가을은 꽃향기를 그대로 머금은 꽃차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자. 송희자씨가 다양한 꽃을 이용해 꽃차를 만들고 있다. /니랑주자 mjna@kwangju.co.kr

송희자씨가 제안하는 가을 꽃차 만들기

가을 꽃은 이슬을 맞아 독기가 거의 없다. 가을은 낮에 아직 뜨거운 햇빛이 남아 있어 꽃을 말리기에 적합한 시기. 송희자씨가 제안하는 가을 꽃차 만들기에 도전해보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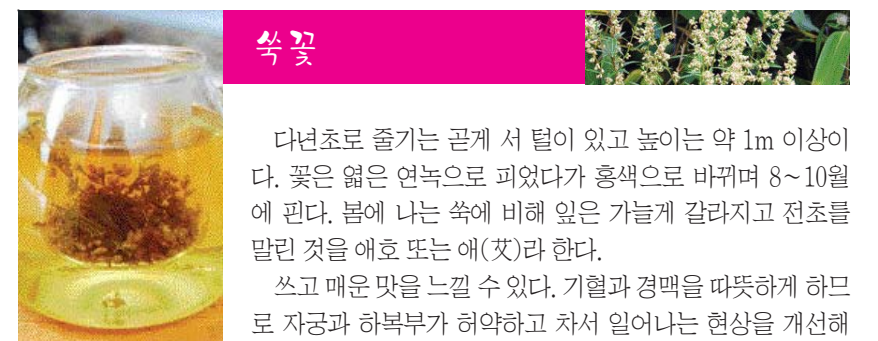
설사·출혈엔 '맨드라미'... 눈 피로엔 '과꽃' 자궁·하복부 허약체질 개선엔 '쑥꽃차'를



맨드라미

일년초이며 전체에 털이 없고 줄기가 곧아 높이는 약 90cm에 달한다. 꽃은 홍색, 황색, 적색 등이 있으며 빠르기는 7월에서 9월에 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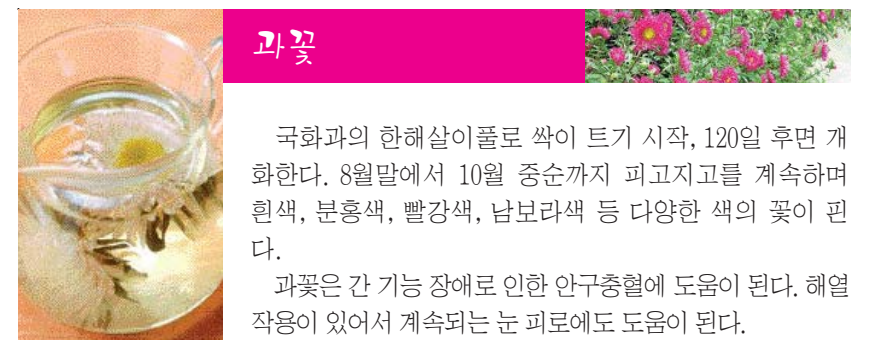
- (차 만드는 법) ① 맨드라미는 씨앗 부분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 윗부분만 썬다. ② 사이사이 있는 거미줄이나 이물질들을 깨끗이 손질한다. ③ 2~3mm 정도로 잘게 찢는다. ④ 그늘에서 말린 후 프라이팬에 살짝 튀어낸다. (2~3회 반복) ⑤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한다.



쑥꽃

다년초로 줄기는 끈기 서 털이 있고 높이는 약 1m 이상이다. 꽃은 옅은 연녹색으로 피었다가 홍색으로 바뀌며 8~10월에 핀다.

- (차 만드는 법) ① 8~10월까지 채취가 가능하며 봉오리서부터 개화한 것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다. ② 양지 바른 꽃의 속꽃을 훑어서 채취한다. ③ 서늘한 그늘에다 얇게 퍼서 말린다. ④ 50% 이상 말린 후 기름이 닿지 않은 프라이팬이나 냄비에다 볶는다. ⑤ 튀으면서 비비면 흰 반이 나온다. ⑥ 4~6회 반복하면 되는데 소쿠리나 채서 하루나 만지가 걸러지도록 한다.



과꽃

국화과의 한해살이풀로 싹이 트기 시작, 120일 후면 개화한다. 8월말에서 10월 중순까지 피고지고를 계속하며 흰색, 분홍색, 빨강색, 남보라색 등 다양한 색의 꽃이 핀다.

- (차 만드는 방법) ① 과꽃은 이슬이 조금 큰 편에 속하므로 바로 꽃 말림까지 잘라 채취할 수 있다. ② 채취한 과꽃을 이물질이 있는 것을 벗어나 면봉으로 깨끗이 손질한다. ③ 물을 끓여 그 위에 찢기를 넣고 찌는 편이다. ④ 찌는 할 때 약 40초 정도 찌는 것이 좋으며 식힌 다음 다시 찌기는 2~3회 반복한다. ⑤ 체에다 얇게 걸러지 않게 넣어 말린다. ⑥ 밤에는 따뜻한 방에다가 낮에는 서늘한 그늘에 말리는 것이 좋다.

대인부동산건설 (011-625-0510) - 식당, 일식, 횡집, 레스토랑, 고전문점, 1층 50평 임대, 1층 30평 임대, 학원임대 (1층 25평 봉선동 학원회차지), 토지매도, 상가건물매매, 모텔매매

합동법률경제 (433-7799 H.P. 011-1770-3328) - 아파트, 주택/다가구 (침실), 상가주택, 근린시설/상가, 숙박시설 (모텔), 대지/농지/임야/공장

법원경매 전문회사 (062-222-8446) - 근린시설/근린상가 상당, 모텔/침실 상당, 상가주택/주택, 공장, 임야/농지

CALEO (주)태양상사 -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,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.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안심하세요.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연소방열체 사용으로 전자파제로